보리수 나무(The Linden Tree).
스위스에서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란스게마인데(Landsgemeinde)

그 해, 나는 아펜첼(Appenzell)의 란스게마인데(Landsgemeinde)를 찾았다. 우리의 세 딸들이 막 스위스 국적으로 귀화를 한 참이어서 였는지, 이 행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대에 찬 눈빛이었다. 군중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오늘 스위스 대통령도 온다네.... 일본 대사도 온대." 커다란 광장 위에 설치된 발코니에는 외국 TV 중계팀이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고 있었다. 레이스로 만들어진 창문 커튼 뒤로 여인네들은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단상에서는 일꾼들이 마지막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경찰을 로프로 경계선을 두르고 있었다. 빨강 조끼에 노랑 바지, 검정 벨벳 비니 모자로 이루어진 전통 복장을 갖추어 입은 금발의 소년 하나만이 이 모든 일에 괘념치 않아 보였다. 그 아이는 거대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 놓은 길다란 벤치 주위로 여동생을 잡으러 다니느라 분주했다.

수 세기 동안 이 나무는 아펜첼의 야외 입법 회의이자, 스위스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수 민주주의의 실례가 진행되는 장소를 제공해 왔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이 곳에 모여 과연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다른 스위스 여성들처럼 아펜첼의 여성들도 1971년 국가가 인정하는 투표권을 확득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결정에 이어 스위스의 각 주에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관계 없이 연방 정부의 결정을 따랐다. 하지만 스위스의 가장 작은 주, 아펜첼 이너호덴(Appenzell Innerrhoden) 주만은 예외였다. 아펜첼에서 만들어지는 치즈만큼이나 아펜첼 사람들의 고집불통은 유명해졌다.

세 번에 걸쳐 아펜첼 주의 반이 넘는 남자들이 란스게마인데의 여성 출입권을 반대했다. 1513년 13번째로 스위스 연방 정부에 소속된 아펜첼은 언제나 자신들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그것을 바꿀 의향은 전혀 없었다. 행사를 기다리다가 나는 레이스 손수건이나 몇 장 사려고 숍에 들어갔다. 나는 여주인에게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들의 투표를 허락할거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검은 레이스로 된 전통 모자의 날개를 살짝 넘기며, 그녀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다는 듯 똑 부러지게 대답했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투표에 영향을 주죠." 그 말인즉슨,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없더라도, 집안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남자들의 투표에 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었다.

검은 모자에, 검은 복장, 검은 조끼를 갖춰 입은 남자들이 여유만만하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큼지막한 은 시계를 무거워 보이는 은 체인에 매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념없었다. 나이가 지극한 양반들은 놀던 아이들을 쫓아내고 길다란 나무 벤치로 향했다. 차단된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신이 영예로운 시민이고, 무기를 들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젊은이들은 총검이나 스위스 장교 단검을, 노인들은 길다란 검을 보여 주었다. 그 전에 나는 새 칼을 하나 보았는데, 무기 쇼윈도에서 빛나고 있는 400 프랑짜리 검이었다.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을테다. 이 광장에 모여든 검은 수 세기 동안 조상들에게 물려 받은 오래된 것들로 보였다. 농부들과 치즈 장인들에게서는 전투적인 으스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걸을 때마다 칼이 다리에 부딪히도록 놔두거나, 마치 지팡이처럼 다리에 기대어 있도록 놔두었다. 앉을 때는 섬세하게 무늬를 새겨넣은 은으로 된 칼집 둘레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 칼집을 세운 뒤, 턱을 얹어 두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길가에는 경찰이 팽팽히 둘러친 로프에 기댄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 뒤로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건장한 여자 하나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밀쳐대고 있었다. 투표로도 할 태세였다.

이제 광장은 꽉 들어쳤다. 검은 유니폼을 갖춰 입은 밴드 중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금관 악기에 광을 내는 일을 멈추고, 퍼레이드를 시작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중앙로에서 나타난 란담만(Landammann)과 판사들이 폭이 넓은 검은색 망토를 두르고 광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행진은 무겁고 인상적이었다. 군인들의 행진과는 다르게 천천히 앞을 향해 걸어 나간뒤,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 뒤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걸었다. 각 그룹 사이에는 먼저 깃털 장식의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고, 아펜첼 주 깃발을 공중에 던지는 묘기를 보여 주었다. 모든 관계자와 초청인사들이 단상에 자리를 잡고 나자, 란다만은 의회, 연방, 주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하였고, 지역 문제 및 지역의 법 개정에 대한 안건들이 하나씩 논의 되었다. 투표를 위해 무기들이 공중에 솟아 올랐고, 놀라운 속도로 구역에 따라 숫자게 세어졌다. 하지만 스위스 연방 대통령이 찾았다 하더라도 란스게마인데는 다시 한 번 여성들의 투표권을 거부하고 말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부장제가 지속될 것인가?

군중이 흩어지는 가운데, 나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높이 솟은 보리수 나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부동의 힘이란...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스위스의 대법원까지 그 의견을 밀어 부쳤다. 1990년 마침내 판결이 났다. 한 명의 여성과 여섯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판사들의 네 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연방 재판소는 1971년에 선포된 여성의 투표권 뿐만 아니라, 1981년에 공표된 시민 평등권 역시 거부되고 있음에 동의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결정을 시행하도록 하느냐였다. 법정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작은 주를 강압해야 할 것인가? 판결은 시범적인 것이자 각 주의 다양성을 700여년간 지속해온 정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법정은 "아펜첼의 법은 그 주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는 란드로이테(Landleute)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이 조항이 쓰여진 19세기에는 암묵적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를 뜻하는 것이었다." 판사들은 아펜첼 사람들이 이제는 란트로이테를 현대적인 의미인 남자와 여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것이 아펜첼-이너호덴 주의 여자들이 비로소 사람이 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경위다.

지금은 매년 4월 마지막주 일요일, 여자들이 남자들 옆에 서서 투표장에 입장한다. 여자 시민들은 단검과 장검 대신에 간단히 분홍빛 표를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레이스 숍의 주인장은 틀렸다. 많은 여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펜첼 출신의 수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했고, 루트 메츨러(Ruth Metzler)와 같은 젊은 인재는 국회 의원이 되기도 했다. 비록 그녀가 속한 당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긴 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첼에서는 지금까지 세 명의 여성 국회의원과 두 명의 고위 관료가 탄생했다. 국회 의사당에서 얻은 표는 인색했지만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참 공교롭게도 그 오래된 보리수 나무는 죽고 말았다. 하지만 큰 광장에서는 또 하나의 건장해 보이는 새 보리수 나무가 자라고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참고자료: Petit Guide de la Suisse insolite/Made in Switzerland, Mavis Guinard, Metropolis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